

소외이웃 '희망의 끈' 찾아주는 복지탐정단

광주 서구 화정1동 주민 50여명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목욕·집안 청소 돕고 생활비·병원비 지원하며 온정의 손길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사는 A양은 이혼과 실직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엄마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는 말을 듣곤 한다. 우울증까지 겹친 엄마는 자녀를 돌볼 형편이 못했다. A양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오빠 B군은 가족과 주변의 무관심 속에 끼니마저 제 때 챙기지 못한 날도 많았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에 내던져져 그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A양의 얼굴이 조금이나마 환해졌다. 같은 동네 주민들로 꾸려진 화정1동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A양 가족의 사연을 듣고 서로 돕겠다고 나섰다. A양과 오빠는 유치원과 학교를 마

치고 집에 돌아오면 인근 복지협의체센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총치 때문에 제대로 밥집을 이루지 못했는데 주민들 도움으로 치과 치료도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활동에 들어간 광주 서구 화정1동 '우리동네 복지탐정단'이 어려운 이웃들의 베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화정1동 보장협의체 회원 50여명으로 꾸려진 복지탐정단은 마을을 돌며 공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방에 편입될 기준이 되지 않거나 복지 대상자이더라도 주민 자신이 자신이 해당지임을 모르는 사례를 찾아 직접 도움을 주거나 복지

망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한다.

이들은 그동안 50세 이상 단독가구,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원룸 단독가구 등 3200가구를 직접 찾아가 형편을 살폈다. 이 가운데 170가구가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상자로 보이는 주민 30가구는 공공기관과 연결해줬다.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270건의 후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건넸다. 주민들이 직접 뛰다니 비교적 소득이 적은 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알려진 화정1동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다.

머릿니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있던 어린이,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쌓아 놓고 지내던 강박장애 주민, 원룸에 살며 몇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던 미혼 여성... 주민들은 머릿니 때문에 놀림 받던 초

등학생 집에 찾아가 머리를 감겨 줬고 아이가 사용하던 이불과 침대, 수납장 등을 새것으로 바꿔줬다. 동네 목욕탕을 찾을 수 있도록 목욕쿠폰도 건넸다. 쓰레기를 쌓아둔 주민 집도 찾아가 깔끔하게 치우고 소독도 해줬다. 밀린 건강보험료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었던 여성에게는 병원비를 지원해줬다.

정훈조 화정1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 살펴보기 전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이렇게 많는지 몰랐다"면서 "작은 온정의 손길이지만 어려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위안이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우리동네 복지탐정단'은 이달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6 해질 18:08 달출 01:10 달짐 12:13

한풀 꺾인 추위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 많음 -6/7
목포	눈온뒤결 -6/5
여수	구름 많음 -4/5
나주	구름 많음 -10/7
완도	비 또는 눈 -4/6
강진	구름 많음 -11/7
해남	구름 많음 -7/5
장성	구름 많음 -10/6
보성	구름 많음 -10/4
순천	구름 많음 -6/6
영광	구름 많음 -10/4
진도	눈온뒤결 -5/5
전주	맑음 -9/6
군산	맑음 -8/5
남원	맑음 -11/3
축산도	눈온뒤결 -1/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부	남동~동 1.0~2.5	북동~동 1.0~2.0	
남해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서부	남동~동 1.0~2.0	동~남동 1.0~2.0	
남부	남서~서 1.5~2.5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29 13:00	07:54 19:56
여수	간조	만조
	08:32 20:48	02:33 14:27

◇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	☀	☁	☁	☀	☀	☀
-2/9	-1/7	-3/1	-4/4	-2/9	-1/11	-1/9



‘사랑의 장보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7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설을 앞두고 관내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전달할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19~24세 선거 출마 제한 심판해달라”

광주 YMCA 소속 청년들 오늘 헌법소원 판결 촉구 회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청년들이 만 19~24세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8일 오후 2시 광주YMCA 백제실(금남로)에서 열리며 광주 YMCA·전남YMCA 소속 청년 30여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한국YMCA 전국연맹, 녹색당, 우리미래,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노동당, 민중당 등이 참여한 ‘피선거권 헌법소원 연석회의’는 만 25세 미만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 16조는 위헌이

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만 19~24세 청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이 있으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청년들은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도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배제되고 있다. 이제는 70년 전 도입된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이라는 낡은 유산과 결별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년들도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절대평가에 수능영어 대입 비중 ‘뚝’

4등급 서울대 공대 합격... 국어·수학·탐구 비중 높아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영어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영어 4등급을 받았음에도 수학 만점으로 공대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국어·수학·탐구 영역 비중이 높아져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18학년도 서울

대 정시 최초 합격자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합격자 중 2등급 이하 비율이 39%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등급 간 점수 차가 극히 적어 영어 4등급(원점수 60점)을 받았지만 수학 만점을 받아 공대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대는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0.5점씩 감점한다.

고려대도 최초 합격자 중 영어 2등급 이하가 37%로 추정됐다. 고려대는 2등급은

1점 감점하고 3등급부터는 한 등급 내려갈 때 2점 감점한다.

등급 간 점수 차가 큰 연세대는 최초 합격자 대부분이 영어 1등급을 받아 2등급 이하 비율이 2%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는 영어 1등급을 100점으로 하고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7.5점, 4등급은 75점을 준다.

수능 성적 분포를 보면 국어·수학·탐구 영역 기준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합격권(인문계 상위누적 1.5%, 자연계 상위누적 3.0%) 가운데 영어 1등급 학생은 약 75%, 2등급 이하 학생은 24% 정도로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제한속도 하향

서문대로·남문로 내달부터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문대로(효덕교차로~행암교차로)와 남문로(삼영웨딩홀~너릿재터널)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5월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속도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서문대로는 현 시속 80km에서 60km로, 남문로 구 삼영웨딩홀~솔바우주유소는 70km에서 60km, 솔바우주유소~너릿재터널은 80km에서 70km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구, 2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광주시 동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 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대인시장 주변도로인 한미소풍 사거리에서 동부소방서 사거리 구간(왕복 4차로 270m)은 8~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남광주시장은 남광주교에서 학강교 구간(천변일방로 150m)이 연중 상시

허용된다. 단, 출·퇴근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5~9시 사이는 주차가 제한된다.

이용객들의 주차허용 시간은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모두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다. 동구는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허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장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